공범주원리의 부활

조 기 석*

차 례

Ⅰ. 들어가기
Ⅱ. 국부성 조건들의 한계
Ⅲ. 공범주원리의 필요성
Ⅳ. 맺음말

Ⅰ. 들어가기

Chomsky(1981)에서 제시된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는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condition)과 함께 지배결속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에서 이동(movement)에 대한 제약조건으로 사용되었다. 하위인접조건이 외현적 이동(overt movement)의 거리에 대한 제약이라면 공범주원리는 외현적 이동과 은현적 이동(covert movement)의 방법에 대한 제약으로 사용되어져왔다. 지배결속이론이 Chomsky (1993, 1994, 9995, 1998, 1999, 2001)의 최소주의이론(minimalist theory)으로 발전되어가면서 하위인접조건은 다른 국부성조건으로 통합되었지만 공범주원리는 다른 조건으로 통합되거나 발전되지 못하고 최소주의이론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남게 되었다.

공범주원리가 최소주의이론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범주원리에서 사용하는 장벽(barrier)의 개념 때문이다. 장벽은 이동과 표상(representation)에 대한 제약역할을 하는 개념으로서 최소주의의 기본방향과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는 부합하지 않는 개념이다. 최소주의이론은 인간의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조음·지각체계(articulatory perceptual system)와 개념·내포체계(conceptual intentional system)와 같은 외부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완벽시스템으로서 문법이론 내에서 도입되는 모든 개념은 외부시스템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개념이어야 한다. 하지만 장벽의 개념은 이러한 외부시스템이 요구하는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 개념이 아니며 따라서 최소주의이론이 꼭 필요로 하는 개념이 아니다.

Ⅱ. 국부성 조건들의 한계

Chomsky (1965)에서 시작된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에서는 이동에 대한 제약으로서 핵이동제약(head movement constraint), 복합명사구제약 (complex NP constraint), 등위구조제약(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주어절제약(sentential subject constraint), *wh*-섬제약(*wh*-island constraint), 상위범주우선제약(A-over-A constraint), 과도인상금지제약(super-raising), 그리고 좌분지금지조건(left branch condition)등이 사용되었다. 다음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제약들을 살펴보자.

(1) a. *[$_{CP}$ Pass [$_{TP}$ he will __ the bar exam]]]?
b. *[$_{CP}$ Who are [$_{TP}$ you reading [$_{NP}$ a book that criticizes _]]]?
c. *[$_{CP}$ What did [$_{TP}$ he say [$_{CP}$ when [John ate __]]]?
d. *[$_{CP}$ Whom would [$_{TP}$ [$_{CP}$ for [$_{TP}$ him to meet __]] make his wife upset]]?
e. *[$_{CP}$ Butter [$_{TP}$ he is crazy about [$_{NP}$ bread and __]]]
f. *[$_{CP}$ [$_{TP}$ John was certain [$_{CP}$ [$_{TP}$ it turned out [$_{TP}$ __to leave his hometown]]]]].
g. *[$_{CP}$ Which had [$_{TP}$ John taken a picture of [$_{NP}$ __ person]]]?

(1a)는 핵이 다른 핵을 건너 이동한 경우로서 핵이동제약을 위배한 문장이

다. (1b)는 의문사의 이동이 복합 명사구를 빠져나간 경우로서 복합명사구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1c)는 의문사가 *wh*-섬을 빠져나간 경우로서 *wh*-섬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1d)는 의문사가 주어절을 빠져나간 경우로서 주어절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1e)는 명사구의 이동이 등위구조를 빠져 나간 경우로서 등위구조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1f)는 가장 하위절의 주어가 중간 하위 절을 들리지 않고 맨 상위절로 이동한 경우로서 과도인상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1g)는 명사구의 가장 왼쪽에 있는 의문사가 명사구에서 빠져나간 구문으로서 좌분지금지조건(left branch condition)을 위배한 문장이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제약에 의해서 이러한 문장의 비문 성을 설명하였다.

변형생성문법이 Chomsky(1981)의 지배결속이론으로 발전 하면서 국부성조건으로 하위인접조건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한계 절점을 빠져나가는 것을 제약하는 하위인접조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Subjacency condition

Movement cannot cross more than one containing bounding node where bounding nodes are IP and NP.

변형생성문법에서 비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제약들은 대부분 하위인접조건으로 통합된다. 문장 (1a), (1b), (1c), (1d), (1e), (1f), 그리고 (1g)중에서 핵이동제약을 위배한 (1a)를 제외한 나머지 구문들은 모두 하위인접조건으로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1)]

---

1) (ⅰ) *[CP Pass [TP he will the bar exam]]]?
(ⅱ)*[CP Who are [TP you reading [NP a book that criticizes]]]?
(ⅲ)*[CP What did [TP he say [CP when [John ate]]]?
(ⅳ)*[CP Whom would [TP [CP for [TP him to meet]] make his wife upset]]?
(ⅴ)*[CP Butter [TP he is crazy about [NP bread and]]]
(ⅵ)*[CP [TP John was certain [CP [TP it turned out [TP to leave his hometown]]].
(ⅷ)*[CP Which had [TP John taken a picture of [NP person]]]?
핵이동제약을 위배한 문장 (i)은 핵의 이동이 하나의 한계절점 TP를 빠져나갔으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복합명사구제약을 위배한 (ii), 좌분지금지조건을 위배한 (vii), 그리고 등위구조제약을 위배한 (v)는 α가 한계절점 NP와 TP를 동시에 빠져나갔다. wh-섬제약을 위배한 (iii)와 주어절제약을 위배한 (iv), 그리

지배결속이론의 하위인접조건은 변형생성문법의 제약들을 대부분 포용하지만 핵이동제약을 포용하지는 못한다. Chomsky (1993)에서 시작된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하위인접조건과 핵이동제약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최소연결조건(minimal link condition)을 제시한다. Chomsky (1993, 1995)에서 제시된 최소연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3) Minimal Link Condition

α can raise to target K only if there is no legitimate operation Move β targeting K, where β is closer to K.

최소연결조건에 따르면 α가 K로 이동하려면 K에 α보다 더 가까운 β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깝다는 개념은 성분통어의 관점에서 판단되므로 α가 K로 이동하기 위해서 K와 α 사이에 K에 의해서 성분 통어되고 α를 성분 통어하는 β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소주의의 이러한 국부성 조건으로 (1a), (1c), 그리고 (1f)의 비문성은 설명할 수 있으나 (1b), (1d), (1e), 그리고 (1g)의 비문성은 설명할 수 없다. (1a)는 핵이 핵을 지나친 경우로서 중간에 β에 해당하는 *will*이 있으므로 최소연결조건을 위배하며 따라서 최소연결조건으로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 (1c)의 경우도 의문사 *what*이 다른 의문사 *when*을 지나치므로 최소연결조건을 위배하며 따라서 최소연결조건으로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

(1f)의 경우는 중간에 있는 *it* 때문에 최소연결조건이 위배되며 따라서 최소연결조건으로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1b), (1d), (1e), 그리고 (1g)의 경우는 비논항이동의 경우로서 중간에 비논항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최소연결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며 따라서 최소연결조건으로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최소연결조건은 복합명사제약, 주어절제약, 등위구조제약, 그리고 좌분지금지조건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고 과도인상금지제약을 위배한 (vi)는 α가 두 한계절점 TP를 동시에 빠져나갔다. 따라서 (i)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은 하위인접조건에 의해서 모두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

최소연결조건은 최소주의 이론이 일치이론으로 발전되면서 국면불가침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으로 발전된다. Chomsky(2001)에서 정의하는 국면불가침조건은 다음과 같다.

(4)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Any goal in the c-command domain of a phase head is impenetrable to a probe outside the phase.

위의 국면불가침조건에 따르면 국면의 핵의 성분통어영역 내에 있는 어떠한 요소도 해당 국면 외부에 있는 탐침(Probe)에 의해서 접근 될 수 없다. 보문소구와 타동사구만 국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1a), (1b), (1c), (1d), (1e), (1f), 그리고 (1g)의 문법성을 판단해보겠다. 편의상 (1a), (1b), (1c), (1d), (1e), (1f), 그리고 (1g)를 (5a), (5b), (5c), (5d), (5e), (5f), 그리고 (5g)로 다시 제시한다.

(5) a. *[$_{PH2}$ Pass he will [$_{PH1}$ __ the bar exam]]?
b. *[$_{PH4}$ Who are [$_{TP}$ you [$_{PH3}$ _ reading [$_{NP}$ a book [$_{PH2}$ _ that [$_{PH1}$ criticizes _]]]?
c. *[$_{PH4}$ What did he [$_{PH3}$ _ say [$_{PH2}$ when John [$_{PH1}$ _ ate _]]]]?
d. *[$_{PH4}$ Whom would [$_{PH2}$ _ for him to [$_{PH1}$ _ meet _]] [$_{PH3}$ make his wife upset]?
e. *[$_{PH1}$ Butter he is crazy about bread and _]
f. *[$_{PH3}$ John was certain [$_{PH2}$ it turned out to [$_{PH1}$ __ leave his hometown]]].
g. *[$_{PH2}$ Which had John [$_{PH1}$ __ taken a picture of __ person]]?

(5a)에서 동사 *pass*의 이동은 첫 번째 국면에서 두 번째 국면으로 가는 이동으로서 외형상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지만 첫 번째 국면의 핵에 부가된 자리에서 두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실제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핵이동제약을 위배한 (5a)의 비문 성을 국면불가침 조건으

로 설명할 수 없다. (5b)에서 의문사 *who*의 이동은 단계적으로 세 국면을 넘었다. 하지만 다음 국면으로의 이동이 모두 이전 국면의 지정어 자리에서 출발한 이동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복합명사구제약을 위배한 (5b)의 비문성도 국면불가침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5c)에서 의문사 *what*의 두 번째 이동은 두 번째 국면을 빠져나가므로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한다. 즉 국면불가침조건은 *wh*-섬제약을 위배한 문장의 비문성을 설명할 수 있다.

(5d)에서 의문사 *whom*의 이동은 두 번째 국면에서 세 번째 국면을 들리지 않고 네 번째 국면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한다.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은 주어절제약을 위배한 문장의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 (5e)에서 *butter*의 이동은 국면을 빠져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은 등위구조제약을 위배한 문장의 비문 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5f)에서 *John*의 이동은 두 번째 국면을 들리지 않고 바로 세 번째 국면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은 과도인상금지제약을 위배한 문장의 비문 성을 설명할 수 있다. (5g)에서 의문사 *which*의 첫 번째 이동은 첫 번째 국면 내의 이동이며 두 번째 이동은 두 번째 국면의 핵의 지정어 자리에서 세 번째 국면의 핵의 지정어 자리로의 이동이다. 즉 국면불가침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면불가침조건은 좌분지금지조건을 위배한 문장의 비문 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국면불가침조건은 핵이동제약, 복합명사구제약, 등위구조제약, 그리고 좌분지금지조건을 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면불가침조건의 문제점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6) a. [$_{PH2}$ About whom did you [$_{PH1}$ __ talk __]]?
b. [$_{PH2}$ Whom did you [$_{PH1}$ __ talk about __]]?
c. [$_{PH2}$ To whom did you [$_{PH1}$ __ send the gift __]]?
d. [$_{PH2}$ Whom did you [$_{PH1}$ __ send the gift to __]]?
e. [$_{PH2}$ After which party did John [$_{PH1}$ __ see Mary __]]??
f.*[$_{PH2}$ Which party did John [$_{PH1}$ __ see Mary after __]]]?
g. [$_{PH3}$ What is the building [$_{PH2}$ the roof of which we [$_{PH1}$ see over there]]]?

h. [$_{PH3}$ What is the building [$_{PH2}$ of which the roof __ we [$_{PH1}$ see over there]]]?
i.*[$_{PH3}$ What is the building [$_{PH2}$ which the roof of __ we [$_{PH1}$ see over there]]]?

(6a)는 전치사동반이동이 일어난 문장이며 (6b)는 전치사가 좌초된 문장이다. (6a)와 (6b)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6c)는 전치사동반이동이 일어난 문장이며 (6d)는 전치사가 좌초된 문장이다. (6e)는 전치사동반이동이 일어난 문장이며 (6f)는 전치사가 좌초된 문장이다. (6e)와 (6f)가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치사동반이동이 일어난 (6e)는 정문이고 전치사가 좌초된 (6f)는 비문이다. 관계사가 이동한 (6h)와 (6i)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 (6h)와 (6i)가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고 있지만 전치사동반이동이 일어난 (6h)만 정문이고 전치사가 좌초된 (6i)는 비문이다. 전치사 동반이동이 선택적인 (6a), (6b), (6c), 그리고 (6d)의 경우는 이동을 겪는 의문사가 보충어(complement)에 해당하고 전치사 동반이동이 필수적인 (6f), (6g), (6h), 그리고 (6i)의 경우는 의문사가 부가어(adjunct)에 해당한다. 전치사동반이동이 선택적인지 아니면 필수적인지에 있어서 보충어와 부가어는 차이를 보이지만 정문인 경우와 비문인 경우 모두 국면불가침조건을 준수하므로 부가어의 의무적 전치사동반이동을 국면불가침조건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국부성조건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국부성조건의 문제점

국부성조건	설명할 수 있는 제약	설명할 수 없는 제약 또는 조건
하위인접조건	(1) 복합명사구제약 (2) 등위구조제약 (3) 주어절제약 (4) *wh*-섬제약 (5) 상위범주우선제약 (6) 과도인상금지제약 (7) 좌분지금지조건	(1) 핵이동제약

최소연결조건	(1) *wh*-섬제약 (2) 상위범주우선제약 (3) 과도인상금지제약 (4) 핵이동제약	(1) 복합명사구제약 (2) 주어절제약 (3) 등위구조제약 (4) 좌분지금지조건
국면불가침조건	(1) *wh*-섬제약 (2) 주어절제약 (3) 과도인상금지조약	(1) 핵이동제약 (2) 복합명사구제약 (3) 등위구조제약 (4) 좌분지금지조건 (5) 부가어의 의무적 전치사동반이동

Ⅲ. 공범주원리의 필요성

하위인접조건, 최소연결조건, 그리고 국면불가침조건의 문제점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위인접조건은 핵이동제약을 포용하지 못하며 최소연결조건은 복합명사구제약, 주어절제약, 등위구조제약, 그리고 좌분지금지조건을 설명하지 못한다. 국면불가침조건은 핵이동제약, 복합명사구제약, 등위구조제약, 좌분지금지조건, 그리고 부가어의 의무적 전치사 동반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부성조건의 이러한 문제점이 Chomsky (1981)의 공범주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지 살펴보겠다.

(8) Empty Category Principle

α properly governs β if and only if α lexically properly governs β, or α antecedent governs β.

위 (8)에 명시된 공범주원리에 의하자면 이동에 의해서 생성된 흔적은 어휘지배나 선행사지배에 의해서 적절 지배되어야한다. 공범주원리 (8)에 의해서 국부성조건이 설명할 수 없는 비문성이 설명되는 지 살펴보겠다.

(9) a. *[$_{BARRIER2}$ Pass$_i$ he will [$_{BARRIER1}$ t_i the bar exam]]?

b. *[$_{BARRIER5}$ Who$_i$ are you [$_{BARRIER4}$ $t_{i'''}$ reading [$_{BARRIER3}$

a book [$_{BARRIER2}$ $t_{i''}$ that [$_{BARRIER1}$ $t_{i'}$ [$_{BARRIER1}$ criticizes t_i]]]]]]?

c. *[$_{BARRIER4}$ Whom$_i$ would [$_{BARRIER3}$ $t_{i''}$ for him to [$_{BARRIER2}$ $t_{i'}$ [$_{BARRIER1}$ meet t_i]]]] make his wife upset?

e. *[$_{BARRIER3}$ Butter$_i$ he [$_{BARRIER2}$ $t_{i'}$ [$_{BARRIER2}$ is crazy about [$_{BARRIER1}$ bread and t_i]]]]

f. *[$_{BARRIER4}$ John$_i$ [$_{BARRIER3}$ $t_{i''}$ [$_{BARRIER3}$ was certain [$_{BARRIER2}$ it [$_{BARRIER1}$ $t_{i'}$ [$_{BARRIER1}$ turned out t_i to leave his hometown]]]]]].

g. *[$_{BARRIER3}$ Which$_i$ had John [$_{BARRIER2}$ $t_{i'}$ [$_{BARRIER2}$ taken a picture of [$_{BARRIER1}$ t_i person]]]]?

(9a)는 핵이동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동사 *pass*는 VP의 핵 자리에서 CP의 핵 자리로 이동한 경우로서 첫 번째 장벽 때문에 동사 *pass*의 흔적이 선행사지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7a)는 공범주원리를 위배한 문장이며 이는 공범주원리가 하위인접조건, 최소연결조건, 그리고 국면불가침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 문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9b)는 복합명사구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중간흔적은 선행사지배에 의해서 적절 지배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면 (9b)의 첫 번째 흔적은 어휘지배에 의해서 적절 지배되며 나머지 흔적은 모두 선행사지배에 의해서 적절 지배된다. 첫 번째 장벽은 동사구부가에 의해서 장벽 성이 소멸된다. 하지만 명사구인 세 번째 장벽은 명사구부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네 번째 흔적은 세 번째 흔적을 선행사지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9b)는 세 번째 흔적 때문에 공범주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이는 공범주원리가 최소연결조건과 국면불가침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 문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9c)는 주어절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세 번째 흔적이 세 번째 장벽 때문에 선행사 지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9c)는 공범주원리를 위배하고 있다. 공범주원리는 최소연결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주어절제약의 효과를 설명해낼 수 있다. (9e)는 등위구조제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butter*는 어휘지배가 되지 않으므로 선행사지배에 의해서 공범주원리를 준수해야한다. 전치사 *about*이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명사구 *bread and butter*의 장벽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흔적은 첫 번째 장벽 때문에 두 번째 흔적에 의해 선

행사 지배되지 않는다. (9e)가 공범주원리를 위배하므로 공범주원리는 최소연결조건과 국면불가침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 문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2)]

(9f)는 과도인상금지조약을 위배한 문장이다. 두 번째 흔적이 두 번째 장벽 때문에 선행사 지배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범주원리를 위배한다. 공범주원리는 최소연결조건과 국면불가침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 문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 (9g)는 좌분지금지조건을 위배한 문장이다. 첫 번째 흔적이 첫 번째 장벽 때문에 두 번째 흔적에 의해서 선행사 지배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범주원리를 위배한다. 공범주원리는 최소연결조건과 국면불가침조건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 문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공범주원리의 필요성은 전치사 동반이동에 있어서 보충어와 부가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0) a. $[_{BARRIER2}$ [About whom]$_i$ did you $[_{BARRIER1}$ $t_{i'}$ $[_{BARRIER1}$ talk $t_i]]]$?

b. $[_{BARRIER3}$ [whom]$_i$ did you $[_{BARRIER2}$ $t_{i'}$ $[_{BARRIER2}$ talk $[_{BARRIER1}$ about $t_i]]]]$?

c. $[_{BARRIER2}$ [After which party]$_i$ did John $[_{BARRIER1}$ $t_{i'}$ $[_{BARRIER1}$ see Mary $t_i]]]$?

d.*$[_{BARRIER3}$ [Which party]$_i$ did John $[_{BARRIER2}$ $t_{i'}$ $[_{BARRIER2}$ see Mary $[_{BARRIER1}$ after $t_i]]]$?

e. What is the building $[_{BARRIER2}$ [the roof of which]$_i$ we $[_{BARRIER1}$ $t_{i'}$ $[_{BARRIER1}$ see t_i over there?]]]

f. What is the building $[_{BARRIER2}$ [of which]$_j$ the roof $t_j]_i$ we $[_{BARRIER1}$ $t_{i'}$ $[_{BARRIER1}$ see t_i over there]]?

g.*What is the building $[_{BARRIER3}$ [which]$_j$ the roof $[_{BARRIER2}$ of $t_j]]_i$ we $[_{BARRIER1}$ $t_{i'}$ $[_{BARRIER1}$ see t_i over there]]?

---

2) (i) *$[_{Barrier4}$ Butter he will $[_{Barrier2}$ $t_{i'}$ $[_{Barrier2}$ eat $[_{Barrier1}$ bread and $t_i]]]$

(i)과 같은 등위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가정해보자. 등위구조인 *bread and butter*는 *eat*에 의해서 L-marking 되므로 장벽 성이 사라질 수 있다. 동사구의 자체 장벽 성도 동사구 부가에 의해서 사라 질 수 있다. 하지만 등위구조인 *bread and butter*가 가지고 있는 장벽 성을 동사구에 물려주게 되면 동사구는 계승 장벽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간흔적이 선행사지배가 안되어 공범주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10a)는 전치사 동반이동이 일어난 문장이다. *talk about*이 *whom*에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about whom*은 *talk*에 의해서 의미역을 부여받지 않으므로 선행사 지배되어야 한다. 동사구 부가에 의해서 첫 번째 장벽의 장벽성이 사라지므로 첫 번째 흔적과 두 번째 흔적은 각각 선행사지배에 의해 적절 지배되며 따라서 공범주원리를 준수한다. (10b)의 *whom*은 *talk about*에 의해 의미역을 부여받으며 따라서 어휘지배에 의해서 적절 지배된다. 따라서 비록 두 번째 흔적이 첫 번째 장벽 때문에 첫 번째 흔적을 선행사 지배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 흔적은 *whom*에 의해서 선행사 지배되며 따라서 (10b)는 공범주원리를 준순한다. 보충어는 전치사 동반과 전치사 좌초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며 이는 공범주원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10c)는 전치사 동반이동이 일어난 문장이다. *after which party*가 의미역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선행사 지배되어야 한다. 동사구 부가에 의해서 첫 번째 장벽의 장벽성이 사라지므로 첫 번째 흔적과 두 번째 흔적은 각각 선행사지배에 의해 적절 지배되며 따라서 공범주원리를 준수한다. (10d)는 전치사 좌초가 일어난 문장이다. *which party*가 의미역을 부여받지 못하므로 선행사 지배되어야 하지만 첫 번째 장벽 때문에 선행사 지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공범주원리를 위배한다. 부가어는 전치사 동반과 전치사 좌초 중에서 전치사 동반만 가능하며 이는 공범주원리와 관련이 있다.[3)]

(10e)는 관계사의 이동이 전치사를 포함한 명사구를 동반이동 시킨 문장이다. 첫 번째 흔적은 어휘지배에 의해서 두 번째 흔적은 선행사 지배에 의해서 공범주원리를 준수하고 있다. (10f)에서는 다시 전치사를 동반한 관계사 이동이 일어났으며 이 이동에 의해서 생겨난 흔적은 선행사 지배를 받는다. (10g)에서는 관계사 이동이 전치사 동반 없이 일어났으며 따라서 좌초된 전치사에 의해 또 하나의 장벽이 만들어 진다. 이 장벽은 관계사 이동에 의해 생성된 흔

---

3) (i) $[_{BARRIER3}$ [Which party]$_i$ did John $[_{BARRIER2}$ $t_{i''}[_{BARRIER2}$ see Mary $[_{BARRIER1}$ $t_{i'}$ $[_{BARRIER1}$ after $t_i]]]]$?

본 논문에서는 Chomsky (1986:6)에서 명시된 것처럼 α의 동사구 부가는 가능하지만 명사구, 전치사구, 또는 보문소구에 부가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만약 동사구 부가 외에 (i)처럼 전치사구 부가가 허용된다면 (10d)의 비문 성을 공범주원리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적이 선행사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따라서 (10g)는 공범주원리를 위배하게 된다. 공범주원리는 부가어의 이동이 왜 전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원리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생성문법의 국부성제약과 조건은 단계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변형생성문법의 여러 가지 제약을 포용하는 하위인접조건은 핵이동제약을 설명하지 못하며 하위인접조건과 핵이동제약을 포용하는 최소연결조건은 복합명사구제약, 주어절제약, 등위구조제약, 그리고 좌분지금지조건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생성문법의 가장 최근 국부성조건인 국면불가침조건은 핵이동제약, 복합명사구제약, 등위구조제약, 좌분지금지조건, 그리고 부가어의 의무적 전치사 동반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공범주원리를 받아들임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공범주원리는 비록 최소주의 기본방향과 합치되지 않는 장벽의 개념을 사용하지만 국부성조건들의 문제점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주의에서도 실험적으로 필요한 원리다.

인 용 문 헌

Chomsky, N. *Aspects of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1965.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Chomsky, N. *Barriers*, Cambridge, Mass: MIT Press. 1986.

Chomsky, N.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Hale Ken and Samuel Keyser, ed., *View from Building 20*, Cambridge, Mass.: MIT Press. 1993.

Chomsky, N. Bare Phrase Structure. In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5*. 1994.

Chomsky, N.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Chomsky, N.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1998.

Chomsky, N. Derivation by Phase. In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1999.

Chomsky, N. Beyond Explanatory Adequacy, MITWPL 20. 2001.

Horstein, Nunes, Grohamann. *Understanding Minimalism: An Introduction to Minimalist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Koopman, H. *The Syntax of Verbs*. Foris, Dordrecht. 1984.

Pollock, J. Y.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1989.

Abstract

The Revival of Empty Category Principle

Keeseok Cho

The Empty Category Principle is comprised of antecedent govern and lexical govern and judges the grammaticality of sentences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traces are properly governed. In the minimalist theory, the Empty Category Principle has been discarded because it depends on the notion of barrier, which is a theory-internal concept. This article, however, shows that locality conditions such as subjacency condition, minimal link condition, and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s have empirical problems and these problems are solved with the Empty Category Principle. Therefore the Empty Category will be shown to be empirically necessary conditions in the minimalist theory as well.

Key Words: locality conditions, subjacency condition, minimal link condition,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left branch condition, empty category principle, barrier
국부성 조건, 하위인접조건, 최소연결조건, 국면불가침조건, 좌분지금지조건, 공범주원리, 장벽

논문접수일: 2009. 11. 2
심사완료일: 2009. 11. 12
게재확정일: 2009. 12. 14

이름: 조기석
소속: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139-050) 서울 노원구 월계동 392-1 303호
e-mail: d9501001@hanmail.net